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⑨ 미국서 만난 독특한 고려불화

▶ 한줄 요약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는 고려불화 2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원각경변상도〉이다. 〈원각경〉의 한 장면을 도상화한 이 작품의 주존은 노사나불이다. 고려불화의 다채로운 주제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노사나불, 법계를 장엄하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Boston Art Museum)에는 독특한 주제의 우리나라 고려시대 불화가 있다. 총 2점으로, 한 점은 지금 이 지면에 소개하는 〈원각경변상도〉(그림1)이고, 또 한 점은 〈치성광여래왕림도〉이다. 약 15년 전, 필자가 직접 조사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을 때, 당시 보스톤미술관 관장이 직접 유물창고에 들어가 이들 작품을 꺼내 보여주었던 기억이 난다. 해외 여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수월관음도〉 또는 〈지장보살도〉 등 흔히 보는 주제의 그림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특이한 주제의 특이한 도상의 작품은 보관 상태 역시 놀랄 만큼 양호했다. 〈원각경변상도〉는 〈원각경〉의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이고, 〈치성광여래왕림도〉(추후 연재에 소개 예정)는 천공의 온갖 별자리가 부처님으로 변신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들 작품들로 인해 "고려시대 불교미술이 참으로 다채로웠구나"라고 감탄한 바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작품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구나"라는 직감도 떠올랐다.



그림①

노사나불, 대통합의 존상

〈원각경변상도〉의 화면 한 가운데에는 노사나불이 커다란 깨달음의 둥근 빛을 비추며 앉아 계신다. 몸에서 발산하는 신광(身光)과 머리에서 발산하는 두광(頭光), 그리고 다시 한 번 광대한 원광(圓光)이 화면 중심에 크게 자리한다. 노사나불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있다.(그림2) 본래 부처님은 귀걸이 · 목걸이 · 보관 등 장식을 하지 않는다. 간단히 법의(法衣) 하나만 걸치고, 육계보주와 백호로 깨달음을 표현한다. 그런데 많은 종류의 부처님 중에서도, 유일하게 화려한 장엄을 하고 있는 부처님이 계신데, 바로 노사나불이다. 그래서 노사나불을 관세음보살로 착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는 보살처럼 장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나불과 관세음보살은 '장엄의 격'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난다. 고려시대 본 작품의 주존으로 등장하는 노사나불을 필두로, 조선시대에는 괘불(掛佛)의 주존으로 그 도상이 풍미하게 된다. 조선시대 괘불 속 노사나불의 높고 화려한 보관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수히 흐르는 영락구슬, 온 몸체에서 발산되는 서기(瑞氣, 상서로운 기운 또는 에너지)의 장엄 등은 어떤 존상도 감히 따라오지 못할 만큼 가히 압도적이라 하겠다.

노사나불의 또 하나 형식적 특징은 설법인이다. 양 손 손가락의 엄지와 중지를 동그랗게 말아쥐고, 법계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고 계시다. 노사나불이 몸소 보여주는 휘황찬란한 장엄, 이는 법계가 무진연기(無盡緣起)하고 있는 실상(實相)이다. 법계를 장엄하는 것을 '화엄(華嚴)'이라 한다. "다라니 무진보배로써 법계를 장엄하니 부처님 세계로다." 〈화엄경〉을 부처님 한 분으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노사나불'로 표현된다. 물론 〈화엄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원각경〉과 〈범망경〉의 주존 역시 '노사나불'이다.

불화 바탕색 비밀, 감색과 자색

노사나불 머리 위로는 자색(紫色)의 바탕자리가 드러나 있고, 상단 한 가운데에는 만자(卍字) 장엄이 자리한다. 고려불화는 바탕을 적멸의 공간으로 텅 비게 설정한다. 바탕에 아무것도 그려넣지 않는다. 반면, 조선불화는 바탕을 서기의 장엄으로 가득 채운다. 그래서 바탕 공간이 가장 위에 아주 일부만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고려불화이건 조선불화이건 바탕자리의 색깔은 정해져 있다. '법신' 자리라고 하는 바탕자리의 색깔은 자색 · 감색 · 흰색, 셋 중에 하나이다. 전통 사경(寫經)에서도 '감지금니(紺紙金泥)'라는 용어를 흔히 접한다. 이는 감색 종이 바탕에 금으로 사경을 한 것을 말한다. '자지은니(紫紙銀泥)'는 자색의 바탕에 은색 글씨이며, 그 외 백지금니(白紙金泥) 또는 백지은니(白紙銀泥)라고 하여 하얀 바탕을 그대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종류가 많은 듯하나, 결코 감색, 자색, 백색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불화에서는 감색의 바탕 또는 자색을 바탕색으로 쓴다.

제6, 7 차크라 열릴 때의 색깔

고려불화는 자색의 경우가 많은데, 자색은 약간 붉은 빛이 감도는 보라색 또는 자주색이다. 자색은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의 신선 세계의 색으로도 유명하다. 중국에서는 최고의 신성성을 나타낼 때 자색을 쓴다. 그래서 제왕의 집은 '자금성(紫金城)'이고 신선들은 '자하(紫霞, 자색 안개)' 속에서 노닌다고 한다. 그래서 고려불화 바탕에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서기는 대부분 자색인 경우가 많다. 최근 현대 불화에서 바탕색으로 검정색을 쓰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이는 '여법(如法)'하지 않다. 여법하지 않다는 것은 '도상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미술에는 필수적으로 공통되는 종교적 상징 또는 기호가 있다. 이것을 도상(圖像, icon)이라고 한다. 이는 신성성의 체험을 통해 종교 미술로 정착하게 된 절대 이미지들을 말한다.



그림②

보스턴 미술관 '원각경변상도'
고려불화 다채로운 주제 확인
화려한 장엄과 상서로움 눈길
깨달음의 색 '자마 금색' 사용

그림①. 고려시대 조성된 〈원각경변상도〉의 모습.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그림②. 〈원각병변상도〉의 부분 모습. 주존인 노사나불 머리위로 만(卍)자와 그의 장엄들이 눈길을 끈다.

도교에서 검은 '현(玄)'을 천공의 바탕색으로 설정하는데, 이는 검을 '흑(黑)'과는 크게 다르다. 음양오행에서는 북쪽을 근원으로 설정하는데, 이 근원의 색깔이 현(玄)이다. 오행설에서는 북쪽은 물 수(水)에 해당하고, 사신도로 보자면 현무(玄武)에 해당한다. 이 때 깊은 천공의 색깔, 깊은 물의 색깔을 현(玄)으로 표현하고, 불교의 바탕색 감색과 상통한다고 보면 된다.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도 익히 나오는 '이 나라에 현묘(玄妙)한 도가 있으니' 라고 할 때도, 그 오묘한 근원에 있어 '현(玄)' 자를 붙여 표현한다. '검을 현, 누를 황'에서 나오는 '하늘빛은 검고, 땅빛은 누렇다'는 말도, 마냥 새까만 검은 흑색이 아니라, 검푸른 깊은 창공 색 또는 심연의 바닷 속과 같은 쪽빛을 말하는 '현(玄)' 색깔이다.

'투명한 하얀 빛'과 하나 되는 자리

수행 차원에서 쉽게 정리하자면, 제6차크라의 색깔은 감색(짙은 푸른색)이고 제7차크라의 색깔은 보라색(자색)이다. 궁극의 신성성의 컬러라고 할 수 있다. 제6차크라가 계발된 것을 힌두교에서는 제3의 눈이 열린 것으로 표현하여, 실제로 미간 사이에 또 하나의 눈동자를 그려넣어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불교에서는 미간 사이에 '백호'의 여의주로 나타낸다. 그리고 궁극의 차크라인 제7차크라가 열린 것을 육계보주(계주), 머리 꼭대기의 여의주로 표현한다. 물론 보라색을 넘어 '투명한 하얀 색'과 하나가 되는 자리가 있다. 제7차크라와 관련 특징들을 요약하면, 색은 보라색 · 금색 · 흰색이다. 부처님의 색깔을 '자마금색(紫磨金色)'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마금'이란 '자색(보라빛)이 도는 금색'이라는 뜻이다. 이는 지상의 최고 고귀한 색으로 간주된다.

변상도, 불화를 일컫던 옛 용어

본 작품의 제명은 〈원각경변상도〉이다. '변상(變相)'이란, '상(相)' 즉 '이미지 또는 그림'으로 변환해서 나타낸 것이라는 뜻이다. '경전이나 교리의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하였다'라는 의미로, 요즘 말로 하자면,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에 해당된다.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해 그림으로 쉽게 풀어서 나타내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원각경변상도'라는 것은 〈원각경〉의 내용을 도해(圖解)하여 쉽게 풀어서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뜻이다. '사경변상도'라는 용어를 익히 들어 보았을 텐데, 경전의 내용을 사경하고 그 옆에다가 그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서 그린 것을 '변상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 변상도라는 명칭은 '사경 그림'을 지칭하는 사경 장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본 작품에서처럼, 불화도 마찬가지로, '변상도'라고 불렀다. 예를 들면, '관경16관변상도'라는 제명이 쓰여진 고려불화가 있다. 이는 '관경'(관무량수경의 줄임말)의 16관법을 '변상도' 즉 그림으로 쉽게 풀어서 나타낸 작품이란 뜻이다. 현대에는 사경의 그림만 사경변상도라고 하여 제한하여 쓰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림으로 풀어서 나타낸 것은 작은 사경이든, 큰 불화이든 모두 '변상도'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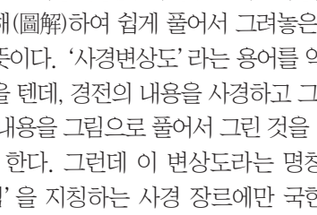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